

大學의 財政危機와 그 克服을 위한 과제

—大學財政難 해소를 위해 各界에 드리는 建議書—

- ◇ 本 協議會는 근간 관계 要素에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質 向上 ◇
- ◇ 과 正常化를 위해 지속적인 大學財政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 ◇
- ◇ 나, 다시 한번 政府 당국 및 關係人士들의 大學財政難 解消에 ◇
- ◇ 관한 共感帶 形成을 바라는 뜻에서 本誌에 建議書 全文을 개 ◇
- ◇ 재한다.<편집자 註> ◇

1. '90년대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當面課題

1) '90년대의 時代性과 大學教育 發展을 위한 課題

우리는 지금 급격한 世界史的 變化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국내·외적 도전과 함께 새로운 跳躍의 機會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 날 經濟爲 主의 成長過程에서 소외되어 왔던 大學教育이 金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이나마 集中的 投資와 體質改善을 하지 않으면 2000년대의 희망과 기대는 實現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 발전의 관건은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며, 이는 고도화된 大學教育을 통해 배출된 水準 높은 人力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의 현실과 처지를 살펴 볼 때, 教育與件은 너무나 劣惡한 상태에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 모두가 대학 사회의 자체 力 悭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반세기의 짧은 대학사와 항상 부족했던 大學 財政 속에서 양적 성장만을 계속해 온 우리나라 대학들은 畸形的인 구조 속에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어느 대학이나 교수 요원이 태부족하며, 도서관 시설 및 실험·설비를 비롯한 각종의 教育與件이 극도로 貧弱한 채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

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엄청난 教育·研究 投資를 계속 하면서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歐美 및 日本 등의 先進諸國은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新興工業國과 비교해도 이미 國際競爭力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장을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속의 未來競爭에서 앞서 나가고 2000 년대의 世界를 先導하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經濟爲主 成長政策의 그늘에서 疎外되어 왔던 大學教育이 금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 劃期的인 體制整備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125개 會員大學 總·學長은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使命感과 함께 우선 대학 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教育與件 改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政府와 産業體 및 社會 各界各層에 大學의 財政難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狀況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大學의 財政難에 관한 畧界의 理解와 國·私立大學 支援

지난 해 政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00억 원의 大學教育 支援豫算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私立大學 補助의 嚆矢가 되었고, 극도의 財政難에 허덕이고 있는 각 大學들에게 한가닥 希望을 불어 넣어 주는 매우 鼓舞的인 계기가 되었다. 關聯機關이나 애써 주신 關係人士들에게 깊은 敬意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지난 날 政治·社會的 葛藤의 피해를 입어 왔던 大學社會는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인식했던 教育投資로 모든 大學들은 극도의 財政難에 허덕여 왔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政府와 與·野 政治人들의 노력에 의해 '89년도 추경 및 '90년도 본 예산에서 國立과 私立大學을 위해 700억 원의 支援豫算을 마련한 것은 財政難에 허덕여 왔던 대학들에게 한 가닥 希望을 안겨 준 매우 鼓

舞的인 일이었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선진 의 국에서와 같이 私學機關에 대해 政府가 補助하는 制度의 嚆矢가 되었을 뿐 아니라 大學發展의 계기를 마련해 준 매우 뜻깊은 歷史的 事實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대학인들은 이러한 政府支援을 크게 환영함과 아울러 政府와 與·野 정치인들의 노력에 깊은 敬意와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私學에 대한 國庫補助가 持續的인 事業으로 制度化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均衡과 調和 그리고 安定과 福祉를 추구하는 새로운 時代精神을 구현하는 길이며, 우리나라 大學發展에 새로운 里程碑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 우리나라 大學 教育與件의 實相

1) 大學 教育與件의 後進性과 그 實相

우리나라 大學의 教育與件은 세계적으로도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갈수록 惡化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중등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후진성은 學園 안에서의 각종 葛藤要因으로 작용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社會的 不信과 國際競爭力의 弱化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의 大學教育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 면에서는 世界 頂上圈에 진입하였고, 인구 비례로 보면 미국 다음가는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質的 水準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諸般 教育與件 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劣惡한 형편에 처해 있으며, 뒤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의 教育與件이 貧弱할 뿐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고 학생 1인당 건물 면적은 9.2m²로서 외국 대학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도서관, 실험·실습 기자재 등의 각종 施設들이 未備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實驗·實習施設이 부족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의 조화를 통한 체계있는 理工系 教育의 深化가 거의 불가능하고, 理工分野 學者의 약 90% 수준을 大學 안에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학·기술의 개발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욕구를 충족

〈표 1〉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 교육 여건의 추이

| 연 도 | 교수 1인당 학생 수(명) | 학생 1인당 장서 수(권) | 학생 1인당 건물면적(m ²) | 강의실당 학생 수(명) | 도서관 학생수(명) |
|------|----------------|----------------|------------------------------|--------------|------------|
| 1970 | 21.2 | 29.0 | 14.3 | 28.6 | 5.3 |
| 1975 | 22.8 | 29.1 | 12.3 | 35.7 | 5.3 |
| 1980 | 34.8 | 17.3 | 11.5 | 56.6 | 7.6 |
| 1985 | 39.4 | 13.9 | 8.3 | 88.0 | 6.0 |
| 1989 | 35.4 | 16.6 | 9.2 | 90.0 | 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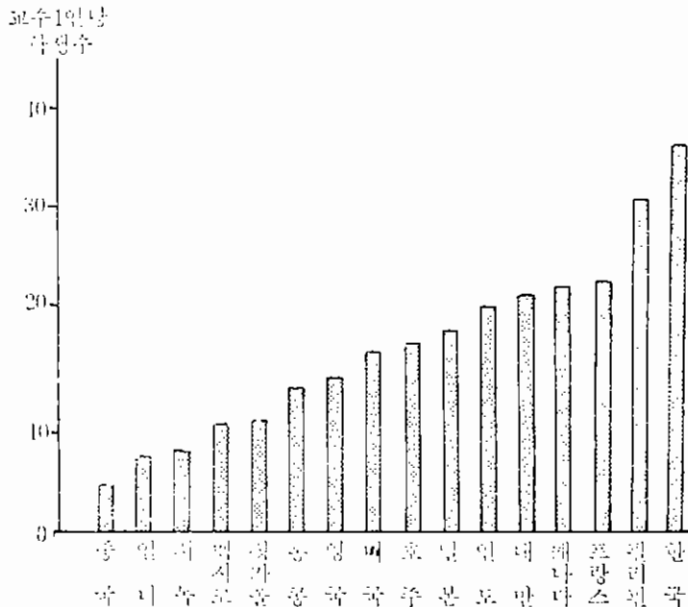
주: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전일 교수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70, 1975, 1980, 1985, 1989.

〈표 2〉 우리나라 학교급별 전일 교원 1인당 학생 수(1989)

| 학 교 급 별 | 전 체 | 국·공립 | 사 립 |
|-------------|------|------|------|
| 국 민 학 교 | 36.3 | 36.2 | 42.7 |
| 중 학 교 | 29.0 | 28.1 | 31.4 |
| 고 등 학 교 | 26.7 | 22.9 | 29.6 |
| 고 등 교 육 기 관 | 35.4 | 26.0 | 39.4 |

주: 고등교육 기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일 교수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9.

〈표 3〉 교수 1인당 학생 수 국제 비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지표, 1989.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國家發展을 停滯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大學教育의 核心의 要素를 이루는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거의 40명 수준에 육박하여 선진 의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國內적으로는 옆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等學校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教授要員의 확보는 大學教育의 成敗를 좌우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라 할 수 있다. 專任教授의 絕對數가 不足하면 교수와 학생간 대화의 부족으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수의 수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연구 활동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體系이고 深度있는 大學教育을 遂行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의 대부분 학과에는 교수 수가 4~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 교수가 여러 전공 분야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므로 大學教育의 質的 水準과 生産性이 크게 低下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교육 여건이 좋다고 내세우는 서울大의 경우를 일부 선진국 대학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 大學 教

〈표 4〉 세계 주요 대학 교육 지표 비교

| 대 학 | 학생 수 (명) | 교원 수 (명) | 교수 1인 당 학생 수(명) | 도 서 량 (만권) | 학생 1인 당 도서 수(권) | 학생 1인 당 경비 (만원) | 학생당 경 비: 서울 대 대비 | 총 예산: 서울대 대비 |
|-------|-------------|-------------|-----------------------|---------------|-----------------------|-----------------------|------------------------|--------------------|
| 서울대 | 28,000 | 1,300 | 21.5 | 134 | 48 | 293 | 1.0 | 1.0 |
| 동경대 | 20,546 | 2,288 | 9.0 | 609 | 296 | 2,952 | 10.1 | 7.4 |
| 옥스퍼드대 | 13,500 | 1,408 | 9.6 | 800 | 593 | 1,434 | 4.9 | 2.4 |
| 아헨대 | 34,638 | 3,115 | 11.1 | — | — | 1,034 | 3.5 | 4.4 |
| 미네소타대 | 43,741 | 2,988 | 14.6 | 1,100 | 251 | 1,904 | 6.5 | 10.2 |
| 일리노이대 | 34,447 | 2,676 | 12.9 | 719 | 209 | 1,219 | 4.2 | 5.1 |

자료: 조완규, “대학재정위기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1990.

育與件의 劣後性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대의 교육 여건은 선진국 대학의 教育與件에 비해 크게는 10배 이상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經濟적으로 驚異의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스포츠와 국제 무역, 해외 건설이나 기능 경쟁 등에서 세계 상위권을 자랑하게 되었고, 소득이나 생활 수준에서도 현저히 향상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高等教育에 있어서의 財政的 부족이나 이로 인한 教育의 不實과 그 生産性 低下는 國家의 均衡의 發展이란 측면에서 死角地帶를 이루고 있다.

2) 大學의 財政難과 그 要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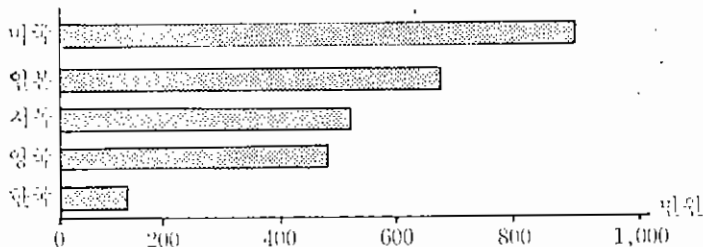
教育의 質의 水準이 뒤떨어지는 것은 教育與件의 不實에 그 原因이 있으며, 教育與件의 不實은 教育財政의 不足에서 유래되고 있다. 그리고 教育財政의 不足은 學生 納入金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大學財源의 構造的 矛盾에 기인하고 있다.

大學교육 여건의 악화 현상은 근원적으로 大學財政의 脆弱性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상태는 發展은 고사하고 現狀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學生 1人當 公教育費 規模를 다른 나라와 比較해 보면, 우리 大學財政의 脆弱性이나 이로 인한 教育不實의 實相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198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0만 원인데 비하여 일본은 629만 원, 미국은 875만 원, 서독은 552만 원, 영국은 510만 원으로 아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 빈약할 뿐만 아니라 1인당 GNP 대비 공교육비 비율로 비교해 보아도 그 규모가 영세하다. 이처럼 不足한 財源은 大學教育與件의 不實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國家發展의 基礎가 되는 科學·技術의 開發이나 學問的 發展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 大學生 人口의 75% 이상을 수

〈표 5〉 고등교육 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



자료: 조완규, “대학재정위기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1990.

용하고 있는 私立大學의 財政은 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당초 토지를 기본 자산으로 하여 설립된 상당 수의 사학 재단들은 1950년의 토지 개혁에 따라 地價證券으로 불리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일시에 모든 자산을 잃었고 教育財團이라는 名分에 묶여 收益事業도 많은 制約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외국과는 달리 사회나 산업체로부터의 寄附慣行이 成熟되지 못한 상황 아래서 그동안 持續的인 出捐과 무려 4,500억 원에 달하는 차관 및 부채 등으로 많은 私學財團들이 그 支援能力을 거의 상실하게 됨으로써 대학 재원의 대부분을 納入金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나 학생들이 아무리 學校法人의 財政負擔을 요망하더라도 財團들은 그 限界性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20 불에 불과한데, 이는 외국 대학들이 평균 2,060 불의 政府支援金을 받는 것에 비하면 그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지원도 없고,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受益者負擔이란 標榜 아래 教育費의 거의 全額을 학생들의 納入金에 의존해 온 大學財政의 脆弱性과 그로 인한 大學教育與件의 不實은 더욱 加速化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大學의 財政危機 克服을 위한 課題

대학의 財政危機를 克服하는 길은 다양한 財源을 開發하고 政府의 負擔率을 높임으로써 學生 1人當 教育費를 최소한 國際平均水準(약 4,500 弗)으로 確保함과 아울러 合理的 財政運用을 통해 教育投資의 效率性을 提高하는 것이다.

高等教育이 普遍化되어 가고 있는 상황 아래서 학부모의 부담만을 늘려 教育與件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 학생 납입금뿐 아니라 국가·사회로부터의 財政支援 및 寄附, 대학 스스로의 財源 확보 능력 등을 통하여 多樣的 財源을 개발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의 受惠者는 학생뿐 아니라 國家와 社

會도 포함된다는 사실과 私立大 學生의 學父母는 자녀의 教育비 전액과 함께 國稅라는 二重的 負擔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私立大學 教育에 대한 國家와 社會의 財政支援은 당연한 論理的 歸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高度成長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大學教育의 現實을 직시하고, 그 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또한 경제 성장의 결과는 그 성장을 주도한 인재를 길러 준 大學社會에 환류되어야 한다는 論理 앞에 異論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산업체에서도 大學財政의 危機를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은 先進外國의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다. 때는 바야흐로 정부나 사회가 대학교육이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配慮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局面에 도달하였다는 주장이 결코 무리일 수는 없는 것이다.

3. 大學 教育與件 改善을 위한 追加 所要財政 및 財源確保

1) '90년대의 大學發展을 위한 追加 財政規模

'90年代를 大學教育의 成熟期로 設定하고 大學教育 發展 10個年 計劃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追加 所要財政은 2001년까지 대략 7조 930억 원으로 推算되는 바, 그 중 50%에 해당하는 약 3조 6,500억 원(매년 약 3,300억 원)은 國庫補助로 充當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요망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가 하는 所要財政에 대한 推定과 그 追加 所要財政을 確保하기 위한 財源確保의 努力이 필요하다.

1987년에 教育改革審議會가 마련한 所要財政 推定結果를 근거로 GNP 價格修正指數(GNP deflator)를 사용하여 향후 11년간의 소요 재정을 1989년 불변가로 환산·추정해 보면, 현재의 교육 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뒤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2001

〈표 6〉 고등교육 추가재정 소요

(단위: 억 원, '89년 불변가)

| 구분 | 1991 | 1992~1996 | 1997~2001 | 총계(1991~2001) |
|-------------|------------------|-------------------|-------------------|-------------------|
| 기본 교육 여건 확충 | 1,245 | 10,168 | 23,843 | 35,256 |
| 국립 대학 여건 확충 | 480 | 3,632 | 7,872 | 11,984 |
| 사립 대학 여건 확충 | 765 | 6,536 | 15,971 | 23,272 |
| 교육 개혁 사업 추진 | 1,281 | 13,027 | 21,364 | 35,672 |
| 지방 대학 육성 | 170 | 1,097 | 1,601 | 2,868 |
| 대학 교육 개혁 | 580 | 5,946 | 10,843 | 17,369 |
| 산학협동체제 확립 | 78 | 517 | 517 | 1,112 |
| 대학원 교육 내실화 | 453 | 5,467 | 8,403 | 14,323 |
| 총계(연평균) | 2,526 (2,526) | 23,195 (4,639) | 45,207 (9,041) | 70,928 (6,448) |

주: 공은배 외 2인의 교육재정 소요판단(한국교육개발원, 1987)의 재정 소요 추정 결과를 1989년 불변가로 환산한 것임.

년까지 총 7조 930억 원, 매년 약 6,450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高等教育의 惠澤을 받고 있는 모든 社會 構成體, 즉 政府, 대학, 학부모, 기업 및 民間의 責任과 役割이 적절히 分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7조 930억 원의 추가 재정 중 그 절반 정도는 대학의 다양한 노력과 사회의 기부 및 학생 납입금의 인상 등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한 약 3조 6,500억 원(매년 3,300억 원)의 추가재정은 國庫補助로 充當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大學教育 發展 10개년 計劃의 樹立·推進을 強力히 제안하는 바이다.

2) 大學의 自救的 財源開發 및 擴充

교육의 質 向上을 위한 追加財源 確保를 위해서는 學生 納入金의 引上이나 法人出捐金의 擴充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產業體 및 篤志家의 寄附金 등이 대폭 開發·增大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寄與에 의한 入學制度' 등도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劣惡한 大學 教育與件을 다소나마 改善하기 위해서는 향후 11년간 매년 평균 약 6,45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추가 재정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재원에 편중하여 의존하기보다는 多樣한 財源確保 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 가능한 자원 확보 방안으로는 우선 學生 納入金의 인상이나 法人出捐金의 擴充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知的 所有權에 의한 收入, 研究用 役 契約에 의한 收入, 大學施設의 貸與 등에 의한 收入, 同窓會 등 支援團體의 寄附金, 學校法人의 收益事業에 의한 支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企業이나 篤志家의 寄附金 등이 대폭 개발·증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寄與에 의한 入學制度 등도 일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원 확보 방안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7조 930억 원 중 국고 보조 지원액을 제외한 약 3조 4,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 대학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그 財源別 擴充 方案 및 確保豫想額은 뒤의 〈표 7〉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納入金은 뒤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소득에 비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원래 고등교육 비용이 국민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를 감안할 때는 오히려 대폭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사립대학 재정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학생 납입금도 교육 발전을 위한 追加 所要財政

〈표 7〉 정부 보조를 제외한 재원별 추가 확보 예상액¹⁾

(단위: 억 원, '89년 불변가)

| 구 | 분 | 1991 | 1992~1996 | 1997~2001 | 총 계 |
|---------------------------------|---|--------------|-------------------|-------------------|-------------------|
| 대학 자체의 확보 노력 | | 60 | 1,300 | 1,500 | 2,260 |
| 연구용역 사업 활성화 | | 20 | 300 | 500 | 820 |
| 대학교육재화 및 용역의 판매 | | 20 | 500 | 500 | 1,020 |
| 대학 시설의 대여 | | 20 | 500 | 500 | 1,020 |
| 학교 법인 의 전입금 | | 50 | 1,500 | 2,000 | 3,550 |
| 민간으로부터의 재원 확보 | | 50 | 2,000 | 3,000 | 5,050 |
| 순수 기부금 모금 | | 50 | 1,000 | 1,500 | 2,550 |
| 기여 입학 제 검토 | | — | 1,000 | 1,500 | 2,500 |
| 납입금 인상 에 따른 추가 수입 ²⁾ | | 553 | 7,213 | 15,326 | 23,092 |
| 총 계(연 평균) | | 713 (713) | 12,013 (2,403) | 21,826 (4,365) | 34,552 (3,141) |

주: 1) 재원별 추가 확보 예상액은 '89년도 4년제 고등교육 기관 수입 예산을 근거로 추정해 본 수치임.

2) 납입금은 매년 전국 평균 2.5%씩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여 '89년도 불변가로 산출하였음. 이 경우에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연 10% 정도의 납입금 인상이 요구됨.

〈표 8〉 주요 국가의 1인당 GNP 대비 등록금 비교

(단위: US\$)

| 구 | 분 | 1인당 GNP | 학생당 납입금 평균액 | | 1인당 GNP 대비 납입금(%) | |
|--------------|---|---------|---------------------|---------------------|-------------------|------|
| | | | 국·공립 | 사립 | 국·공립 | 사립 |
| 한국(1989) | | 4,968 | 1,317 ¹⁾ | 2,008 ¹⁾ | 26.5 | 40.4 |
| 일본(1988) | | 23,317 | 3,640 | 8,086 | 15.6 | 34.7 |
| 미국(1987~'88) | | 18,557 | 4,320 | 10,800 | 23.3 | 58.2 |
| 영국(1987~'88) | | 12,143 | — | 8,855 ²⁾ | — | 72.9 |

주: 1) 인문계 재학생을 기준으로 함.

2) 자연계 외국인 학생 기준임. 인문계의 수업료는 US\$6,751(1인당 GNP 대비 55.6%), 의·치의학계 수업료는 US\$16,393(1인당 GNP 대비 135.0%)임.

을 분擔한다는 입장에서 物價引上率(연간 약 7% 수준)보다는 더 높은 납입금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도 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4. 政府에 대한 '91년도 豫算支援 要請

1) 國立大學의 期成會費 補助

'91年度 政府豫算에 38개 4년제 國立大學(敎育大學 11개교 및 開放大學 3개교 포함)의 國庫豫算을 최대한으로 확충함과 아울러 期成會 補助로 320억 원 수준의 追加支援이 필요하다. 이는 期成會費에서 지원되는 獎學金의 國庫補填(약 200억 원)과 國立大學에 기배정되어 있는 敎授定員을 모두 충원할 수 있는 財源(약 120억 원)으로서

國立大學 敎育與件 改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과 관리하에 있는 국립 대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세계 잉여금 3조 1,230억 원(예산 불용액 1,395억 원 포함) 또는 명년도 예산 중에서 국립대학의 기성회 보조로 320억 원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 중 200억 원은 기성회비에서 지원되는 獎學金에 대한 國庫補填額으로, 나머지 120억 원은 국립대학에 기배정되어 있는 교수 정원을 모두 충원할 수 있는 재원(1,130명×1,062만 원=120억 원)으로 사용함으로써 國立大學의 敎育與件 改善에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높게 된 주된 이유의 하나는 각 국립대학들의 敎授定員이

남아 있으면서도(1989년 현재 교육대학을 포함한 4년제 국립대학에는 1,130명의 專任教授 定員이 남아 있음) 기성회 재정의 취약으로 모자라는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高級人力의 失業率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수 많은 박사 학위 소지자가 財政不足으로 인한 教授 增員 抑制에 따라 대학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高級人力 失業率의 증가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낭비 요인을 없앤다는 의미에서도 국립대학 기성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증대하여 각 대학의 教授 定員에 맞추어 모자라는 교수 요원을 모두 임용하도록 獎勵하여야 할 것이다.

2) 私立大學의 教育與件 改善을 위한 經常費 補助

私立大學을 위해서는 經常的 運營費 補助로 '91년도 政府豫算에 1,500억 원을 계상하여 教授要員의 增員과 施設擴充 등 최소한의 教育與件을 確保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공헌을 해왔고 또 大學教育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私立大學의 教育與件은 大幅的으로 개선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國家發展의 源泉'이라는 大學 本然의 機能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교육 투자를 통해 오늘의 심각한 大學財政 危機가 克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私立大學에 대한 投資에 인식하거나 이를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教育與件을 改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89년도 사립대학 지출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보조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 年次的으로 教育與件의 改善을 도모함과 아울러 갈수록 심각한 私學의 財政難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制度化되어야 할 것이다.

일찌기 일본에서는 國民所得 4,000불이 되던 1975년부터 사립대학의 경상적 운영비 중 25%

〈표 9〉 일본의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연간 국고 보조액(1988년) (단위: 억 원)

| 대 학 | 국 고 보조액 | 대 학 | 국 고 보조액 |
|-----------|---------|-----------|---------|
| 日 本 大 | 578 | 順 天 堂 大 | 150 |
| 慶 應 義 塾 大 | 358 | 日 本 醫 科 大 | 149 |
| 東 海 大 | 337 | 上 智 大 | 149 |
| 早 稻 田 大 | 335 | 明 治 大 | 144 |
| 近 畿 大 | 211 | 中 央 大 | 129 |
| 北 里 大 | 199 | 關 西 大 | 127 |
| 昭 和 大 | 193 | 法 政 大 | 126 |
| 東京慈惠會醫科大 | 179 | 東 邦 大 | 125 |
| 東京女子醫科大 | 163 | 東 京 醫 科 大 | 116 |
| 東京理科大 | 152 | 帝 京 大 | 108 |

자료: 朝日新聞, 1989년 9월 21일자.

를 보조하기 시작하여 오늘의 大學發展을 성취한 바 있다. 참고로 1988년도 일본의 主要 私立大學別 補助內譯을 예시하면 위의 〈표 9〉와 같다.

5. 맺는 말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大學教育 半世紀 동안 變化와 우여곡절이 많았다. 더우기 잦은 정치적 변혁이나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 우리 대학들은 많은 충격과 상처를 입어 왔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大學現場의 葛藤과 混線에 대하여 우리 대학인들은 많은 고뇌와 함께 責任感을 느끼고 있다.

大學教育의 正常化는 결코 때를 놓칠 수 없는 緊急한 課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의 결핍을 教育力으로 대체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위기를 技術開發이나 情報科學으로 극복해 가야 하는 처지에 서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大學教育의 劃期的 發展만이 그 첩경이 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投資의 優先順位에 대하여는 많은 論難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落後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계속 갈등과 불만의 現場이 되고 있는 대학들의 運營 正常化를 기하고자 하는 총·학장들의 衷情과 立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에 우리 전국 대학 총·학장 일동은 대학의

재정 위기를 비롯하여 學園問題의 克服을 위한 自救的 努力이나 방안을 多角度로 摸索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선 정부의 持續的인 財政支援을 간곡히 建議하는 바이다.

'91년도 政府豫算(또는 '90년도 追更)에 國立大學 期成會費 補助 320억 원과 私立大學 經常費 補助 1,500억 원 합계 1,820억 원을 計上·反映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서 政府를 비롯한 豫算審議機關 및 社會 各

界에 大學社會의 어려운 實相을 呼訴하는 바이다.

나아가 우리 총·학장 一同은 '90년대의 時代性을 되새기면서 大學教育 中興이라는 歷史的 課業遂行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경주하는 데 뜻을 같이함과 아울러 大學社會 內外에서 많은 關係人士들의 積極的인 支援과 協력을 부탁드립니다.

*